



브랜드 론칭부터
확장·리뉴얼까지
외식솔루션 속도
L1

metro®

Life

쿠팡
소버린시펀드
750억 투자
L2



철길 옆, 자작나무 숲 거닐며… 계절의 흐름 느껴볼까

아파트의 미학(美學)

휘경자이 디센시아

석재 마감재와 어우러진 세련된 조경
따뜻한 색감 더해 격조 높은 공간으로
계절별로 다른 매력 지닌 ‘자작나무 숲’
철길 컨셉 안개분수 조성 ‘버치 힐 가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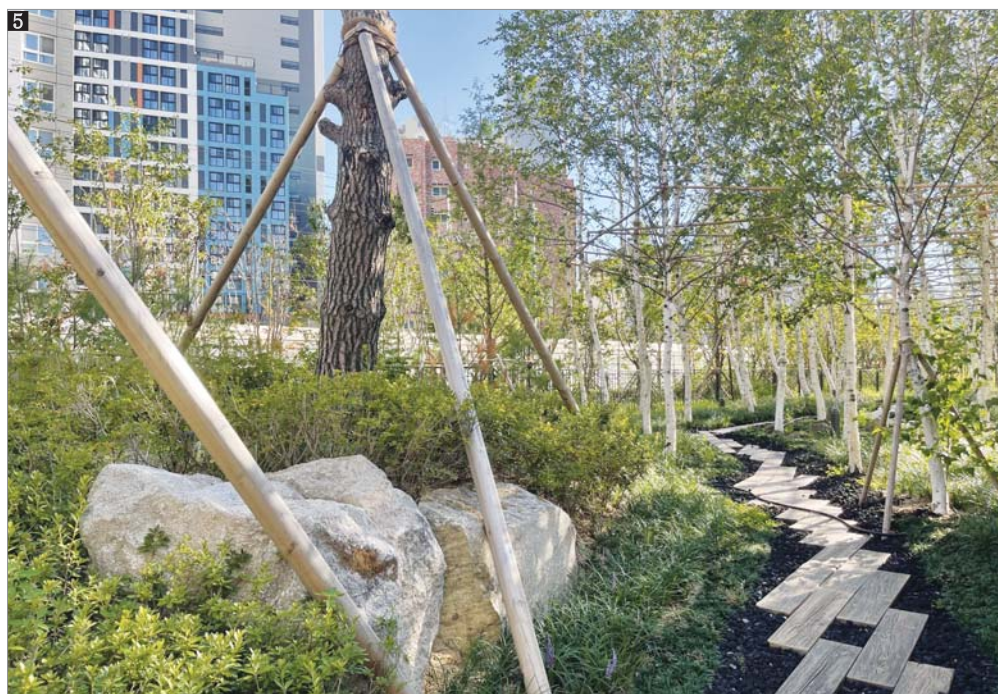
최근 찾은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휘경자이 디센시아’. 지난 6월 30일 입주를 시작했다. 1호선 외대앞역 3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가량 거리에 위치해 있다.

연회색 톤의 두툽한 석재로 마감된 게이트는 차갑지만 견고한 기운을 풍기며 도시 한복판에서 단지를 지키는 성벽처럼 위용을 드러낸다. 위로 곧게 솟은 고층 동들과 맞닿아 웅장함이 배가되며 입주민을 맞이하는 문턱이 자 도시의 관문 같은 인상을 남긴다.

석재 기둥 사이로 단정하게 자리한 ‘자이(Xi)’ 로고는 절제된 배경 속에서 더욱 선명히 빛난다. 회색 석재와 어우러진 검은색 로고는 차분하면서도 세련된 미감을 강조하며 브랜드가 추구하는 고급스러움과 단지의 품격을 동시에 각인시킨다.

단지는 1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3개 노선이 정차하는 회기역과 1호선 외대앞역까지 도보로 닿을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이다. 근처 청량리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상봉역 인근에 코스트코 등 대형 편의시설이 있다. 경희의료원, 삼육서울병원 등 대형 의료시설도 근 거리에 있고 중랑천이 인접해 운동과 여가를 즐기기에 좋은 환경을 갖췄다.

GS건설이 시공한 휘경자이 디센시아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14개 동, 총 1806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전용면적 39~84㎡ 중소형 타입으로 이뤄져 있다.



V자형 남향 위주로 배치돼 채광이 우수하고 전용면적 59㎡ 타입 일부 세대에는 4베이 관상형 구조에 안방 드레스룸 등을 제공해 공간 활용도가 높다.

출입구 상단을 가로지르는 주황빛 조명은 묵직한 석재 마감에 따뜻한 기운을 더하며 고급 호텔 로비를 연상케 한다. 짙은 먹빛 기둥 사이로 스며드는 은은한 빛줄기는 단순한 통로를 격조 높은 공간으로 바꾸어 놓는다.

자작나무원의 사계절을 감상할 수 있는 ‘버치 힐 가든’에서는 이어진 철길을 따라 걸으며 안개분수의 청량함을 느낄 수 있다. 철길 컨셉을 반영해 조성한 공간으로 판석 사이 철재구조물에 자연스러운 녹이 숨어 있다.

‘에코블루 엘리시안 가든’에는 커다란 팽나무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숲이 피었다. 청량한 물소리를 들으며 마음의 대화를 나눌 수 있다. 함께 조성된 ‘수생비오톱’은 깨끗한 물에서 다양한 수생식물이 살아가는 공간이다. 곤충과 나비, 새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들고 여러 식물을 심었다.

대왕 참나무와 휴게데크가 맞이하는 나무의 품 속에서 평온한 시간을 보내면 마음을 비울 수 있는 ‘오크가든’, 나무와 물소리가 배경

오크가든, 리빙가든 등 휴식공간 풍부
테라스 아래 경치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단지 내 랜드마크 ‘디퓨전 스마일’ 등
조각작품 배치, 공간에 예술 감성 더해

이 되는 자연의 거실에 앉아 편안한 휴식을 만끽할 수 있는 ‘리빙 가든’, 테라스 아래 넓은 전경을 바라보며 소중한 사람과 함께 아름다운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테라스 가든’, 계절마다 변하는 나무와 물줄기가 어우러지는 ‘보더 가든’에서는 조용한 물소리와 함께 계절의 변화를 지켜볼 수 있다.

아이들이 뛰노는 공간도 마련돼 있다. 동심 가득한 놀이요소는 활발한 신체 활동을 유도한다. 정글을 여행하는 탐험가가 되어 정글에 살고 있는 다양한 동물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정글 테마 놀이터 ‘용감한 탐험가의 정글 여행’.

빙하가 둘러싸인 남극에서 이리저리 뛰어 놀며 아이들의 모험심에 자극을 주고 한여름에도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빙하 테마 놀이터 ‘행권과 떠나는 빙하 월드파크’, 꼬마 캠퍼가 캠핑장을 뛰어다니며 모험심과 자립심을 키울 수 있는 캠핑 테마 놀이터 ‘꼬마 캠퍼 달빛 캠핑장’.

아이들이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다양한 역할놀이를 즐길 수 있는 캠핑카 테마 놀이터 ‘낭만 캠핑장을 운영하는 캠핑 기지’, 아이들이 항구마을을 탐험하며 신체능력을 키우고 창의적인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해양 테마 놀이터 ‘항구마을 항해사’.

두 개의 조각상은 단지를 하나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준다. 김동규, 김성조 작가의 ‘디퓨전 스마일’은 스테인리스스틸, 우레탄도장으로 만든 작품이다.

모든 대상이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조각구조의 최소단위 즉, 유닛의 구조와 형태를 모듈로 재해석하고 시각화했다. 시각화된 모듈



은 또 다른 모듈과 결합해 미소를 띄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한다.

김경아 작가의 ‘웨이브-밀키웨이’는 스테인리스스틸, 우레탄 도장, LED 조명으로 이뤄진 작품이다. 낮에는 물과 바람 그리고 하늘의 움직임이 되고 밤에는 은하수가 된다. 라인의 흐름을 우아하게 덧입혀 예술적 감성을 더한 문화의 공간을 선사한다.

단지 내 입주민 커뮤니티센터인 ‘클럽 자이안’에는 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GX룸, 입욕시설을 갖춘 사우나, 작은 도서관 등이 들어서 있다. 주민운동시설에서는 스트레칭, 유산소, 무산소 운동을 한 기구에서 프라이빗하게 즐길 수 있도록 고안한 3in1 시스템의 야외운동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 차분한 초록색으로 꾸며 신경과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켜 주고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기에 편안한 호흡으로 기초체력 증진에 도움을 준다.

/전지원 기자 jjw13@metroseoul.co.kr

1 수경공간 ‘에코블루 엘리시안 가든’ 2 김동규·김성조 작가의 ‘디퓨전 스마일’ 3 김경아 작가의 ‘웨이브-밀키웨이’ 4 다양한 나무가 식재된 ‘리빙가든’ 5 자작나무를 감상할 수 있는 ‘버치 힐 가든’ /전지원 기자